

갈등의 동결



비무장지대(DMZ)(2009년 9월 4일)

공유된 기억

프랑스가 떠난 자리에 남은 건 장교 1인과 부사관, 하사, 의용병 28인으로 구성된 분견대 하나로 유엔의 프랑스대대를 상징적으로 대표할 뿐이었다. 1957년 8월, 이 분견대는 5인으로 구성된 연락반으로 대체되었고, 이듬해 1963년에 해체된다. 이후 프랑스대대의 기억은 1950년부터 1953년까지 그들의 주요 행적과 무훈을 추적하며 오늘날 추모의 길 사업의 기원이 된 한국 내 프랑스 참전용사협회의 노력으로 유지되고 이어져 왔다. 프랑스 육군 역시 그들의 '위대한 참전 용사들'과의 멘토링 사업을 통해 그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있다. 프랑스 생 맥성 국립현역부사관학교 (Saint-Maixent l'École) 역시 유엔군 프랑스대대 출신의 선배들과 멘토링 관계를 맺고 있으며 2020년도 입학한 341기 생도들에게 '한국 부사관'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또한 프랑스 육군장교학교 (École militaire interarmes)의 1989년부터 1991년도 입

전을 마치고,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휴전 협정이 체결되었다. 국경은 전쟁 이전과 거의 같은 위치인 북위 38도선으로 굳어졌다. 중공군과 북한군 및 민간인들 사상자 수가 1백에서 2백만 명으로 추정될 뿐 정확하게 평가하기 어려운 것에 비해, 유엔군 프랑스대대의 사상자 수는 보다 명확히 집계되어 있다. 프랑스대대 소속으로 싸웠던 3,400여명의 프랑스인들 중 전사자는 한국인 19명을 포함해 289명이었고, 부상자는 1,000명 이상이었다. 휴전 협정 체결 이후 프랑스 군인들은 한국에 몇 개월 간 더 머물다 1953년 10월 25일, 매우 고된 전투가 기다리는 인도차이나로 향한다. 1953년 11월 1일, 유엔군 프랑스대대는 베트남 사이공에 도착하여 중부 안남에 주둔하고 있던 기동대 GM 100에 합류한다. 이들은 1954년 6월, 1차 인도차이나 전쟁의 막바지에 극심한 인명피해를 겪는다.



유엔 공동묘지의 프랑스 묘역(1952/1953년)

추모의 길

LES CHEMINS DE LA MEMOIRE

영웅들의 일생



© ECPAD/collection Amicale des Anciens du Bataillon de Corée/attribué à Alexis Père

라울 마그랭 베르네레, 일명 랄프 몽클라르 장군

랄프 몽클라르(Ralph Monclar)라 불리는 라울 마그랭 베르네레(Raoul Magrin-Vernerey) 장군이 한국에 머문 기간은 불과 몇 개월에 불과하지만 그의 모습은 유엔군 프랑스대대의 역사와 기억 속에 영구히 남아 있다. 1950년 9월과 1951년 9월 사이에 그는 흔히 알려진대로 프랑스대대를 지휘한 것이 아닌, 프랑스 육군참모부(EMFTF) 내에서 프랑스 파견부대에 중공군과 북한군뿐만 아니라 연합군이 사용한 전술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특수 사령관 역할을 맡았다. 이를 위해 보병대, 포병대, 장갑부대 등 각각의 군사 전문가 십여 명의 장교들이 모여 육군참모부를 구성했다. 몽클라르 장군은 이 직책을 맡기 위해 장군의 별 네 개를 중령의 얼룩무늬 계급으로 기꺼이 맞바꾸었다. 1차 세계대전과 자유 프랑스의 영웅인 몽클라르 장군은 20 회 표창 수훈자이며, 7회 부상을 입었다. 한국에서 그의 존재는 병력 규모가 소박했던 프랑스군의 참전을 돋보이게 하였으며 여타 연합군 부대들이 보여주지 못한 특별함을 부여한다.

군의관 쥘 장 루이

쥘 장 루이는 의학적인 이유로 장교로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음에도 육군 의무대에 입대하여 1940년 봄, 중위 군의관으로 프랑스의 전장에 합류하게 된다. 독일군의 포로가 된 그는 2차 세계대전 동안 여러 포로수용소에서 사병들을 치료한다. 프랑스가 해방되자 그는 대위 군의관 계급으로 북아프리카에 합류한다. 인도차이나 전쟁에서 복무를 희망했던 장 루이 대위는 프랑스 극동 원정군에 합류하여 약 4년 간 장기 체류하였고, 이 시기에 특히 주목을 받게 된다. 한국전쟁에 지원한 그는 1951년 5월 8일 부상당한 한국인 병사 두 명을 구하려다 지뢰를 밟고 치명상을 입는다. 쥘 장 루이의 희생을 기리기 위해 프랑스 군인들 중 유일하게 그의 형상을 한 동상이 한국에 건립되었으며, 서울에서 동쪽으로 백여 킬로미터 떨어진 곳, 그가 전사한 도시 흥천에서 여전히 그를 기념하고 있다.



© Droits réservés

별책 부록 • 추모의 길 282호 • 2023년 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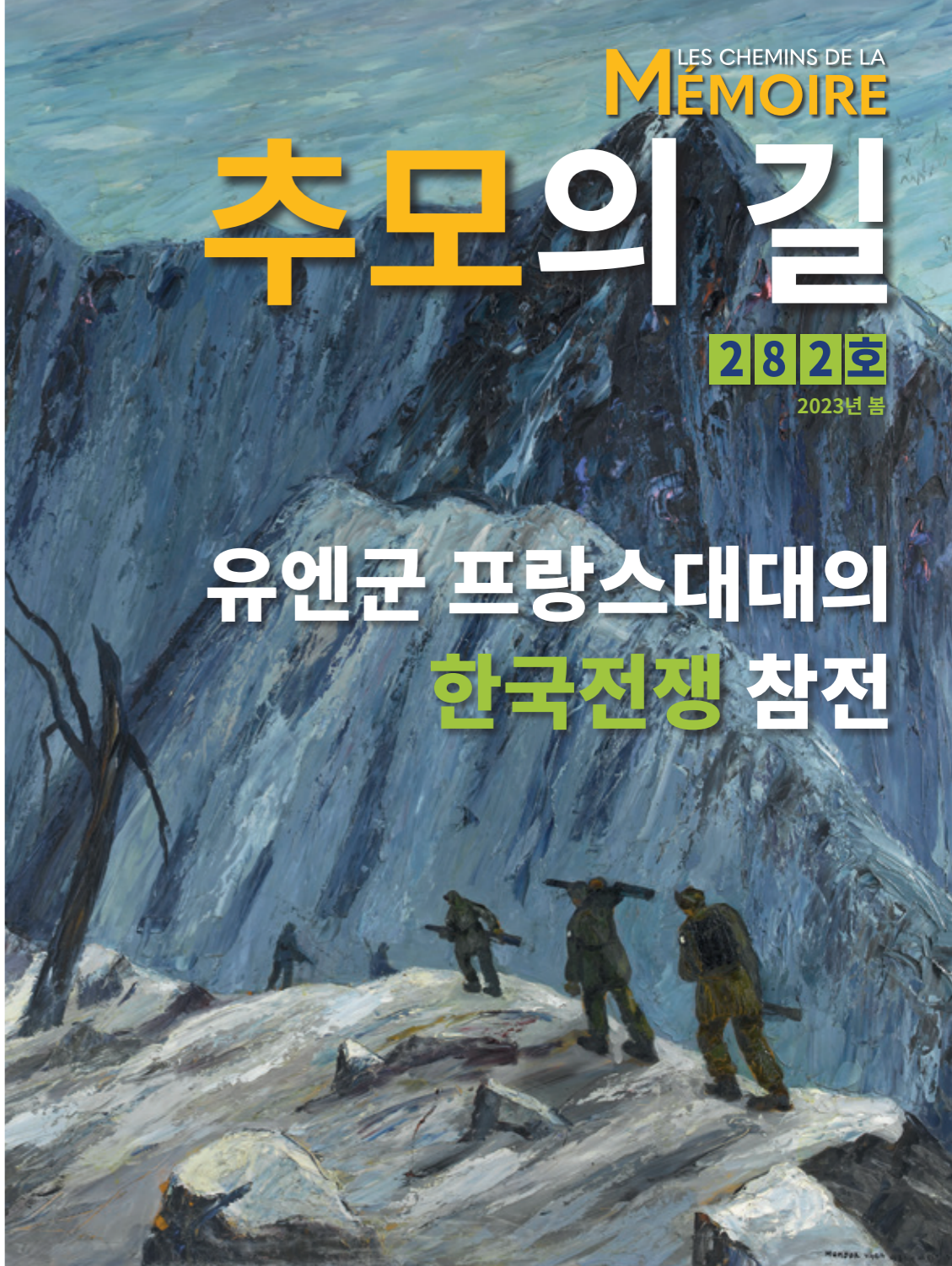
집필: 프랑스 국방역사처 이방 까도 (Ivan Cadeau) 중령
제작 및 인쇄: 육군위원회 - IR - PG TULLE

표지

1037고지 전투(1951년 3월)

© Paris - Musée de l'Armée, Dist. RMN-Grand Palais/Tony Querrec

별책 부록 282 호



LES CHEMINS DE LA MEMOIRE

추모의 길

282호

2023년 봄

유엔군 프랑스대대의 한국전쟁 참전

프랑스 군무부 간행물: 행정사무총국
추모·문화·기록국

유엔기를 단 첫 번째 프랑스군

1950년 6월 25일, 이웃 공산 국가 북한이 남한을 침략한 사건은 남북에 별개의 정부가 수립되던 2년 전부터 잠재되어 있던 전쟁의 종료이자 무력 대화의 시작을 의미했다. 미국은 남한 측 개입을 정당화하기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소집하여, 소련 대표가 불참한 가운데 6월 27일, 회원국들에게 침략국들을 격퇴하고 무력으로 남한의 권리를 회복시킬 것을 요청하는 결의안 제83호를 무리 없이 채택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초대 유엔 사무총장 노르웨이인 트뤼그베리(Trygve Lie)가 프랑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당

시 프랑스는 독일에서의 의무 이행과 북아프리카 내 소유지들의 안전 보장에 앞서 인도차이나 전쟁 중이었던지라 소형 구축함 라그랑디에르(La Grandière) 한 척만을 연합군 산하에 파견하여 제한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프랑스의 참여가 충분치 않다고 판단한 트뤼그베리 사무총장은 수차례 지원을 요청한 끝에, 8월 25일, 프랑스는 지원병으로만 구성된 대대를 조직하기에 이르렀다. 이 대대의 창설이 제한된 인원수의 현역 군대에 너무 큰 여파를 미쳐선 안 되었다.

한국전쟁 중 유엔군 프랑스대대가 이끈 주요 전투



소규모 병력

유엔군 프랑스대대는 미군 부대에 배속되어 전투를 하기로 되어 있었고 이에 따라 미 육군이 사용하고 있는 병력 및 비품표에 맞추어 준비를 마쳤다. 장교와 부사관, 사병으로 구성된 약 1천 명의 병력은 사령부 중대 1 개, 호위 중대 1 개, 기동타격대로 구성된 소총 중대 3 개로 구성되었다. 한국에 도착한지 얼마 되지 않았던 1950년 11월 말, 프랑스대대는 마크에 인디언 추장의 얼굴이 장식되어 ‘인디언 헤드’라고 불

리던 미군의 제2보병사단 23연대에 배속되었다. 각종 군대의 예비역으로 구성되었던 유엔군 프랑스대대는 1951년 1월 말부터 새로운 범주의 군인들을 영입하여 더욱 풍성해진다. 바로 남한군이다. 남한군 한 중대가 먼저 합류하였고, 1951년 봄, 두 번째 남한군 병사들이 편입되면서 프랑스대대 내 ‘한국 중대’가 탄생한다. 남한군 19인은 프랑스 전우들과 함께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유엔군 프랑스대대의 병사들의 전투지는 산복과 뾰족한 능선으로 이루어진 물리적으로 어려운 환경이었다. 특히 첫 겨울은 혹독하게도 추웠다. 1951년 3월의 1037 고지 공격과 점령은 군사적 업적인 만큼 스포츠적 업적이기도 했다. 프랑스대대가 유엔군에 합류하기 전까지 그들의 전투력에 대해 의문을 제기 하던 미군 사령부는 1951년 1월의 원주 전투, 1951년 2월의 쌍터널과 지평리 전투 등 프랑스대대의 첫 전투 이후로 생각을 달리 한다. 미군도 프랑스 병사

들의 맹렬한 전투 태세를 인정하고 이들을 의지할 만한 견고한 군대로 여기게 된다. 1951년 9월의 단장의 능선 전투 혹은 1952년 10월의 화살머리 고지 전투 등 수십 명의 프랑스측 사상자를 냈던 참혹한 두 전투에서 특히 그러했다. 네 개의 종려영외작전지 무공십자훈장, 미국 대통령 표창 3회, 한국 대통령 표창 2회 수훈 사실이 한국전쟁 참전 당시 프랑스군의 우수함을 증명한다.